예수 따름이 안 되는 유전자

(마태복음 2:1~23)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수 따름이 안 되는 유전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 따름이 안 되는 유전자'
우리는 앞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다섯 여인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부계사회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동방박사와 헤롯 대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적 사건과 연관해서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제에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이 의미하는 바는 죄의식과 받아들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듯이 우리는 죄인으로써의 의식을 가질 때에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동방박사의 등장은 마음에 잉태된 예수님의 출산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의 마음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헤롯 대왕의 등장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거센 저항과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인류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의 수가 극히 적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쉬운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은 나가서 돈 벌고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고 건강을 잘 관리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도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따름이 안 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은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이러한 헤롯 대왕의 기질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살펴보았던 1장의 내용을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죄인으로써의 의식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은 다말, 여리고성의 이방인 매춘부였던 라합, 근친상간에 기원을 둔 모압 족속의 과부였던 룻, 자기 남편을 죽인 남자의 아내가 된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이들과 죄의식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사회에서 기피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남편이자 자손이라면 죄의식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마음에 잉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죄가 나와 무관치 않으며 오히려 이 모든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재벌이 되게 하시거나 장수하며 살게 하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과 동일하게 죄인으로써의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죄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느끼는 세상의 모든 문제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더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동방박사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상태를 보여줍니다. 동방박사로 번역된 원문은 헬라어로 마고이(μάγος)입니다. 마고이는 점성가를 말합니다. 일찍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모든 술사와 점성가와 지혜자들의 스승이라는 의미에서 마고이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각해보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의 점성가나 지혜자들의 후예였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들은 하늘을 연구하는 점성가로써 유대인과도 접촉하며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늘을 연구하던 중 성령의 감동에 의해 새로운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대망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

라 확신하며 유대 땅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마태가 주목한 점은 바로 이들이 평생 하늘에 관심을 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이 기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동방박사처럼 하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동방박사는 평생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기쁨을 하늘에서 찾았고 운명적으로 기쁨을 하늘에서 추구하게 된 사람의 상징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오르심을 통해 하늘로 향하는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1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연관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얽힌 남자들로 상징되는 죄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 자신에게 역겨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스스로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끝없이 절망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한 사람만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세상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오르심에도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너무도 적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한 아기들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는 우리이기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을 향하지 못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인 유전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집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찻집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십자가 생활화가 표현되는 첫 번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서 죽고 마음이 하늘에 맞닿은 증거로써 평강이 임하게 되면 배우자는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동의하시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실제로 남편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음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는 출석하고 계신 예배당 조직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서울 강남에 있는 제일 비싼 예배당에 소속을 두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다들 남편에 대한 불평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 집사님께서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남편에 대한 기대를 죽이자 오히려 남편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기를 기도해드리겠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이 분들은 애초에 남편과 사이가 좋아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을 어디까지나 욕하고 원망할 대상으로 남김으로써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달래는 핑계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 초기부터 이혼을 생각했던 이 집사님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마음을 하늘로 보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남편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기쁨과 만족을 가질 수 없는 동방박사들이 하늘만을 관심했던 결과 예수님의 탄생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늘을 가져야 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을 절대 따르지 않겠다는 실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을 가진다면 남편이 아무리 못나고 설령 폭력을 쓰더라도 불쌍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평강이 깨지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하늘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가지지도 못했으며 하늘을 가졌을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늘을 향하려는 마음이 없기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도 거짓말이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원수가 내 마음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하늘을 가진 자의 특징은 원수라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가지지 못한 자는 원수를 미워함이 당연하기에 원수가 사랑

의 대상으로 변하는 것조차 끔찍하게 여기며 거부합니다. 남편을 원수처럼 여겨서 관계가 개선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이 가능했던 이유도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늘로 채워지자 내 주머니의 돈을 남에게 주는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본 적이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신 이유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야 말로 하늘을 가진 자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장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더라도 마음에 평강이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러한 바람조차 갖지 못하는 이유는 유전자가 하늘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제가 동방박사였다면 실망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왕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었으며 예수님의 부모는 초라한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발견하고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 마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통해 일체이셨습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최고로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또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이 세상의 왕들이 좋다고 여겨서 갖고자 했던 모든 가치들을 쓰레기와 배설물로 선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높다고 생각하니까 돈 없이 오신 예수님을 낮아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왕궁을 높은 곳으로 생각하니 마구간을 낮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기에 이 세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을 다 끌어 모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써 모든 일을 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

입니다.
설령 죄를 지어 감옥에 있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늘로 따라 가면 됩니다. 이 땅의 상황은 하늘을 가진 자에게 아무런 제약을 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이 감옥에서 쓰여 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조차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내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미움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미움의 결과가 나타나기만을 바랍니다. 빨리 죽어 없어지든지 어떤 식으로든 결단이 나기만을 바라지 결코 남편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가짐은 결국 하늘을 원하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믿으면 삶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삶은 너무나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불가능한 유전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늘을 가진 자라면 성경에 증거 된 일들이 내게도 나타나기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무상통을 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만큼 하늘로 채워지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네! 주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있고 하늘을 향할 수 있는 유전자를 넣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늘을 향하는 자로써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